

#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사회참여 활동

한금순\*

## • 목 차 •

- I. 머리말
- II. 해방기 제주불교
- III.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사회참여 활동
- IV. 맺음말

---

\* 제주대학교 사학과 외래교수.

© 『大覺思想』 제31집 (2019년 6월), pp.259-294.

## 한글요약

제주불교는 제주4.3항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러한 제주불교의 제주사회 참여 활동은 제주불교 승려들의 사회 인식과 제주도민들의 시대적 인식에 따른 활동과 그 흐름을 같이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해방으로 한국사회의 흐름을 따라 친일을 반성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으로 들끓었다. 신탁과 반탁의 사회적 혼란 상황에서 자신들의 의지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있었다. 제주도에서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5.10선거를 거부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불교도 제주사회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제주도민과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제주불교의 승려 이일선은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 활동에 앞장섰고 승려 이세진은 제주4.3항쟁에서 무장대 지도부로 활동하였다. 승려들의 이러한 사회 참여 활동은 제주불교가 제주사회의 현안에 적극 참여하였던 모습의 일부이다. 제주불교교무원 차원의 제주사회 활동 동참 모습도 포착된다.

제주불교의 중심지였던 관음사는 제주4.3항쟁의 관음사전투 격전지가 되며 사찰 건물이 모두 불태워지고 군 숙영지와 초소 등을 건설해 놓아 군 주둔지로 활용되었다. 관음사는 사찰로서의 종교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였고 이는 제주불교 사찰의 다수에 해당되는 상황이었다.

제주4.3항쟁으로 인한 제주불교의 이러한 수난은 모두 제주불교가 제주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이다. 제주불교를 이끌던 주요 승려의 인명 피해는 제주불교의 오랜 후유증이 되었으며, 사찰 건물 등의 피해 또한 재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 주제어

제주4.3항쟁, 제주불교, 이일선, 이세진, 관음사, 관음사전투, 초토화작전, 수장(水葬), 총살, 전소

## I. 머리말

해방기 제주불교는 당대 한국사회의 흐름과 현안에 적극 동참하며 제주도민과 함께 행동하였다. 1945년 말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를 개최하여 친일불교를 청산하는 등 새로운 시대의 건국정신에 맞추어 활동을 하고자 함을 의결하였다. 제주도승려대회로 설립된 제주불교교무원은 제주43항쟁<sup>1)</sup>의 원인이 되었던 3.1사건 조위금 모집에 동참한다. 제주불교의 승려 이일선은 제주의 3.1절 기념행사를 주관하는 제주도민주주의 민족전선 활동에 참여하였고, 승려 이세진은 무장대로 입산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해방기의 이러한 제주불교의 제주사회 참여 활동은 제주43항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었고, 그 결과 제주불교는 종교 활동 자체가 모두 중단되는 시련을 겪어야 했다. 우선 승려들의 피해가 컸고 종교적 기반 시설인 사찰 건물 및 불상을 비롯한 필요 집기의 훼손으로 종교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였다. 관음사와 법화사 등이 제주43항쟁의 격전지가 되었고 군 주둔지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제주43항쟁은 오늘날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있는 제주도민의 항쟁의 역사로 제주불교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모든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역사적 사실이다. 해방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하였고 한국사회는 물론 제주사회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적극 동참한 제주도민과 제주불교의 활동은 비극이 되었다.

그러나 제주43항쟁 70주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도 제주불교계의 제

---

1) 제주43항쟁의 정명에 대한 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제주43항쟁, 제주43사건, 제주4.3, 4.3사건, 4.3 등으로 불리고 있다. 본고는 제주43항쟁으로 칭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제주43항쟁은 제주도민들이 3.1절을 기념하는 대회를 탄압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면서 시작되었고,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해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부정하면서 확산되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항쟁으로 명명하여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4.3항쟁 참여 활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매우 부족하며 그 진상을 규명하고 기억하기 위한 한국불교계의 활동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2004년 조계종의 한국전쟁기 불교문화재 피해 정리의 일환으로 조사를 수행한 제주불교사연구회의 조사 이래 2018년 보강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주4.3항쟁을 주관하고 있는 제주4.3평화재단에서는 아직도 종교계의 피해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물을 내놓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는 해방기 제주불교의 제주사회 참여 활동을 살피고 그로 인한 제주4.3항쟁기 제주불교계의 피해 상황을 함께 정리하려 한다. 불교계의 피해는 승려들의 적극적 참여 활동에서 비롯된 것임을 살피게 될 것이다.

## II. 해방기 제주불교

### 1. 해방기 한국불교

해방 후 한국 사회는 전분야에서 일제 식민지체제와 결별하고 민족 주체성 확립을 목표로 하는 활동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는 한국불교에 있어서도 주요한 활동 목표였다. 해방 직후 일제 식민지하의 조선불교조계종은 퇴진하고 조선불교혁신준비위원회가 결성되어 새 시대의 민족불교를 수립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교정기구를 조직하고자 하는 의도로 한국불교는 1945년 9월 22일과 23일 태고사에서 전국승려대회를 개최하였다. 전국 본말사를 대표한 60여 명 승려가 대거 참석하여 일제의 31본산제도로부터 탈피한 새로운 한국불교를 조직하겠다는 의안을 의결하였다. 일제 사찰령에 의한 식민지체제하의 불교 조직과 집행부를 전면 거부하고 새로운 교단 구도를 제시하고 불교혁신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결정하였다.

김광식의 연구를 통해 전국승려대회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전국승

려대회에서 다룬 다음의 안건을 통해 대회의 성격을 짐작해 보자.

1. 신 교정 기구 조직에 관한 건
2. 신구(新區) 획정에 관한 건
3. 전국 불교재산 통합에 관한 건
4. 모범총림 창설에 관한 건
5. 교헌 기초에 관한 건
6. 광복사업 협조에 관한 건
7. 총무원 임시 예산 편성에 관한 건<sup>2)</sup>

전국승려대회 결과 가장 두드러진 혁신점은 비구승단 위주의 수행승이 중심이 되는 사찰 운영을 결의한 것이었다. 대처승의 사찰 운영이 일제 하 한국불교 수행풍토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고 성찰하고, 당대 전체 승려의 90%를 차지했던 대처승 문제에 대한 과감한 결단으로 식민지불교로부터 탈피하고자 함을 표명하였다. 비구승단이 운영하는 모범총림 창설을 의결하였고 총림의 조직은 비구승으로 조직하기로 의결하였다. 또한 일제 사찰령에 의거했던 본사제도를 없애고 각 도별로 12개 교구를 새로 설치하고 중앙기관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교단을 통일하고 재정 및 교단의 운영과 교육 등의 사업 운영을 중앙기관에서 통일하여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전국승려대회는 식민지불교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거의 체제와 법규를 대체할 새로운 중앙교단 기구를 설립하고, 집행부 선출, 교헌 제정 준비, 교단의 노선과 사업 등을 새롭게 도출해내었다. 불교청년당과 호법단 등의 구성원들도 적극적으로 의안을 제출하였다. 불교의 수행정신을 강조하여 모범총림과 교도제를 시행하여 재산을 통일하고자 하는 방안이 의결되었다.

각 도에 교무원을 설치하고 13교구제를 실시하였으며 중앙에는 중앙총

2) 김광식, 「8·15해방과 전국승려대회」, 『한국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p.27.

무원을 두기로 결정하였고 그 외 중앙교무회의와 중앙감찰원도 설치하기로 하였다. 내선일체 및 황민화운동에 앞장서 적극적으로 친일 활동을 했던 승려들을 몰아내는 일과 적산사원 및 일본 신사 등을 접수하여 한국불교에 귀속시키는 일도 하였다.<sup>3)</sup>

또한 전국승려대회는 조선불교의 혁신을 주안점으로 수행 풍토를 우선하고 사찰재산의 공유화, 미신 배제, 사회 참여 활동, 친일 반역자 청산 등을 주장하는 등으로 혁신 노선을 추구하였다.<sup>4)</sup> 전국승려대회 결과 조선불교총무원이 출범하였고 박한영이 교정으로 추대되었다.

해방기 한국불교는 신탁통치 문제라는 한국 사회의 현안에 참여하는 등으로 사회문제에도 참여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친일행적의 단죄는 어려웠고 불교계도 교단 내의 다수였던 대처승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또한 미군정의 불교계 협조 미비 등의 어려움 등 한국불교계는 혁신을 위한 제안은 많이 제기되었으나 해방기 한국사회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었다. 한국불교의 친일청산 작업은 한국전쟁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의 왜색 종교 배척 의지에 힘을 얻어 불교정화운동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sup>5)</sup>

## 2. 해방기 제주불교

제주도에서도 전국승려대회의 흐름에 따라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가 개최된다.<sup>6)</sup> 우선 중앙에서 1945년 9월 21일 불교청년당이 조직되어

3) 이도흠, 「해방 이후 한국 사회문제와 불교의 대응 및 지향점」, 『불교학연구』 37호, 불교학연구회, 2013, p.341.

4) 위의 논문, p.342.

5) 위의 논문, 참조.

6) 원자료 <법계>에는 ‘조선불교혁신 전도승려대회’, ‘조선불교혁신 제주승려대회’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도(全島)’라는 용어보다는 전도(全島)의 뜻에 주목하여 ‘제주도’라고 쓰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 혹은 줄여서 ‘제주도승려대회’라는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지방에 각 지부를 두게 되면서 제주도에서는 불교청년단이 결성된다. 대각사의 승려 원문상이 상경하여 중앙불교의 취지에 동감하고 그와 연계한 제주불교 활동계획을 제안하여 불교청년을 모아 1945년 11월 30일 제주불교청년단대회를 개최하였다. 제주도불교청년단 단장은 승려 고기호, 총무 원인상, 선전부장은 승려 백인수 등으로 하고 35명의 회원을 두었다. 불교청년단은 곧이어 제주도승려대회에 참여한다.

단장 고기호를 비롯한 불교청년단원들은 불교활동과 아울러 해방 이후의 제주 사회 흐름에 적극 참여하였다. 그러나 청년단장 고기호는 제주4·3항쟁에 적극 참여하다가 승려 이일선이 토벌대에 의해 수장된 이후 일본으로 피신하였고, 승려 백인수, 고정선, 강기규, 양흥기 등의 불교청년단원들은 총살되었다. 해방 이후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던 제주불교계의 희망은 제주 사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제주4·3항쟁으로 파괴되고 말았다. 불교청년단의 활동도 이러한 제주 사회의 혼란 속에서 더 이상의 모습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지고 만다.

1945년 12월 2일부터 12월 3일에 걸쳐 있었던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는 중앙에서의 전국승려대회의 정신과 그 의결 사항을 잇고 있다. 김광식은 제주도승려대회는 전국승려대회의 산물이라 분석하였다.<sup>7)</sup> 특히 해방으로 제주 교구가 성립되어 불교 운영의 독자성을 갖게 되면서 현대 제주불교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 대회로 보았다.

제주도승려대회 자료인 <법계><sup>8)</sup>를 통해 대회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다.<sup>9)</sup> 제주도승려대회는 일제의 통치로 인해 왜곡된 한국불교를 재건하겠

7) 김광식, 「해방직후 제주 불교계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집,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pp. 256-257.

8) <법계>는 제주도승려대회를 기록한 등사본의 기록이다. 본고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현대 맞춤법에 맞추어 필자가 윤문하였다. <법계>는 『근대제주불교사 자료집』, 제주불교사연구회, 2002에 재수록되어 있다.

9) 한금순, 「근대제주불교사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p.199-222 참조. 한금순의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경인문화사, 2013, pp. 258-291에도 제주도승려대회가 분석되어 있다.

다고 천명하고 있다. ‘조선불교혁신의 새출발’이라는 주제를 내걸었다. 개회를 선언한 후 백용성과 한용운의 추도식을 거행하여 민족불교를 지향하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해방으로 새로운 나라의 건국과 불교교단 기구의 혁신을 기할 수 있는 자치 시대가 왔다는 인식하에 식민지 불교를 반성하고 새로운 교단을 구성하여 새로운 나라에서 불교혁신을 이루겠다는 취지를 선언하고 있다. 앞서 살핀 전국승려대회의 취지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조선불교는 삼십육 년간 일본 제국 총독 정치하에 불교로써 이 상정적(常正的) 발전적 향상을 못하고 갖은 법규로 인하여 그 활약의 제약인 구속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이번에 자유 해방의 보합(步合)을 맞추어 그 체제를 개혁하여 신앙 자유와 이 땅에서 자치운행의 거보(巨步)를 내디디게 된 이 기회로 종래의 교단 기구에 일대 변혁을 행함과 동시에 건국 정신과 보합을 맞추어 전국적으로 각파의 불교단체를 통합하여 신조선의 불교를 재건하려는 역사적 대이상의 실현을 보게 되었다.<sup>10)</sup>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에는 제주도 전역의 사찰과 승려들이 참여하였다. 중앙의 전국승려대회의 결과처럼 제주도승려대회를 통해서도 제주도교무원을 구성해내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내내 제주불교가 희망하였던 일로 사찰령에 의한 본산 체제에서 벗어나 제주도의 독자적인 교무원을 비로소 조직해낸 일이었다.

일제강점기 내내 제주불교에는 본산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제주불교는 서로 다른 각각을 본사로 하는 사찰들로 활동하였다. 1939년에야 이렇게 본사가 다른 사찰들의 연합체인 제주불교연맹을 구성하는 일만으로써 제주불교의 통합 활동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제주교무원은 제주읍내 포교당 대각사를 근거지로 하고 직원을 두는 등의 운영방안을

10) 출처: <법계>(앞의 책).



마련해 놓았다. 이는 중앙의 승려대회에서 중앙교무원을 조직하고 전국적으로 각도에 교무원을 조직하기로 한 그 활동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제주교무원을 대표하여 중앙교무원에 원문상을 파견하기로 했다. 명실공히 제주교무원은 제주불교의 대표단체였다.

제주도승려대회를 통해 제주불교는 13개의 의안을 논의하고 의결하였다.

-. 의안

- (㉠) 건국정신 진작의 건
- (㉡) 사찰정화에 관한 건
- (㉢) 의식개혁의 건
- (㉣) 범려 품위 향상의 건
- (㉤) 사재(寺財) 정리의 건
- (㉥) 대중불교 실현의 건
- (㉦) 교구 자원(資源) 확립에 관한 건
- (㉧) 불전(佛專) 강원 설치의 건
- (㉨) 인재 양성의 건
- (㉩) 모범총림 창설의 건
- (㉪) 교무원 운영에 관한 건
- (㉫) 중앙교무원 대표 파견의 건
- (㉬) 포교기관 월간지 발행에 관한 건<sup>11)</sup>

건국정신 진작을 위한 안건은 순회포교사 2명을 정해 포교하기로 논의 의결하였다. 사찰정화의 건에 대해서는 도량 내의 대처식육을 금지할 것과 사찰 수입의 주지 독단처리를 금지할 것을 의결하였다. 의식을 개혁하여 전통불교의식을 되찾고자 하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사찰 재산의 정리, 교구 자원 확립, 강원설치 등을 의결하였다.

모범총림 창설에 관한 건의 경우는 중앙교무원의 창설방침을 따르기로 의결하였다. 중앙교무원의 모범총림 창설은 대처승으로부터의 탈피를 통

11) 출처: <법계>(앞의 책).

해서 비구승단 중심의 모범총림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대처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제강점기 불교에서 탈피하여 한국불교의 수행풍토를 되살리는 것이라는 인식의 활동이었다. 중앙에서도 모범총림의 창설은 총무원에 일임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는데 제주도승려대회에서도 그를 따르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도승려대회는 해방으로 건국정신을 따라 불교 또한 새롭게 세워야 한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활동을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었던 것이며 제주교무원을 설립해내어 그간 통일된 조직을 희망하던 제주불교의 염원을 이루어내는 성과도 있었다. 이제 제주불교는 통일된 조직을 결성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새로운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주도승려대회의 주요 활동 인물들은 일제강점기부터 제주에서 활동하여 심전개발운동 등에도 참여하였던 인물들이다. 그 중 눈여겨볼 인물은 항일인사로 일제강점기에는 활동이 어려웠던 김석윤이 교무회원 및 고문으로 활동하는 점이다. 해방 이후 제주불교는 제주도 승려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이들 모두가 한데 어우러져 활동하고자 했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승려대회 준비위원장은 승려 이일선이었다. 이일선은 1920년 불교중앙학림 학생으로 조선불교청년회 활동에 참여 이회광의 친일을 규탄하며 일제의 사찰령을 철폐시키고 전통불교를 수호하고자 하는 활동을 하였던 승려이다. 1930년대에 들어서는 심전개발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제주도승려대회의 임시의장으로 대회를 진행한 오이화는 1936년부터 관음사 2대 주지를 역임하며 1939년 제주불교연맹의 집행위원장으로 제주불교를 이끌던 승려이다. 원문상은 제주도승려대회 이전에 중앙총무원에 올라가 제주교구의 독립을 약속받아 오는 등의 활동으로 제주교무원 탄생을 위해 노력하였다. 제주도승려대회의 임시부의장으로 대회를 진행하였다. 제주교무원 총무과장으로 선임되었고 중앙총무원의 대의원으로 활동하였다. 이세진은 강원도 표훈사 중향강원의 강주로 활동하다가 1939

년 백양사 제주도 한림포교사로 부임하면서 제주도 활동을 시작하였다. 관음사 포교당 대각사 제주강원에서 제주도 승려들의 승가교육을 실시하였던 승려로 제주교무원 교무회원으로 선임되었다.<sup>12)</sup> 이와 같은 승려들이 당대 제주불교 승려들이었다.

### III.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사회참여 활동

#### 1. 제주4.3항쟁 개요

해방 이후 제주 사회 또한 한국 사회의 해방기와 마찬가지로 격동의 시기였다. 해방기 제주 사회의 흐름은 제주4.3항쟁을 야기하게 되었고 제주도의 모든 사안은 제주4.3항쟁으로 연결되고 귀결되었다. 해방기 제주불교 또한 제주4.3항쟁의 흐름과 같이하였다. 이에 제주4.3항쟁의 개요를 먼저 살펴야 하겠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제주4.3항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정의) “제주4.3사건”이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제주4.3항쟁은 1947년 3월 1일 ‘3.1절 기념대회’에 참석한 제주도민에게 경찰이 발포한 사건에 항의하는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어,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이 해제되는 시기까지의 기간 동안 국가 공권력에 제주도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12) 한금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경인문화사, 2013, 참조.

제주4.3항쟁은 무장대와 토벌대간의 무력충돌과 토벌대의 진압과정에서 3만여 명의 주민이 희생되었으며 이들의 80%가 토벌대에 의해 학살되었고 이승만대통령의 강경진압이라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이었다고 규정되어 있다. 미군정의 역할 또한 규명되어 있기도 하다.

1945년 해방 직후 자주독립국가 건설을 취지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제주도에도 결성되었다. 건국준비위원회는 인민위원회로 개편되었고 인민위원회는 각 마을에서 치안 활동에 주력하고 자치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활동으로 제주도의 행정을 주도하였다. 미군정은 인민위원회를 제주도에 하나밖에 없는 정당이며 정부 행세를 하는 조직이라고 파악한 기구였다. 그러나 제주도의 인민위원회는 중앙의 좌익 세력으로부터는 비교적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그 성격이 연구되고 있다.<sup>13)</sup> 제주도의 인민위원회 활동은 각 마을의 공동체조직 운영과 일치되는 활동을 하여 중앙의 좌익단체와는 조금 달리 제주도만의 자율적 활동을 하던 인민위원회의 성격이 연구되어 있기도 하다.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물가가 폭등하고 미곡수집정책의 실패 등으로 미군정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불만은 높아 있었다.

1947년 3.1절 기념식을 전도민의 행사로 준비하기 위해 제주도의 각계 각층이 모인 '3.1투쟁 기념행사 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3.1절 기념행사는 전국적으로 거행되었는데, 모스크바삼상회의 내용의 실천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길이라는 인식으로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주장하였고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제주도의 3.1절 기념행사는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이 주도하기로 하였다.<sup>14)</sup> 제주북국민학교에는 주민 3만여 명이 모였고 3.1절 기념행사가

13) 제주도 인민위원회를 제주도민의 자치의식과 공동체 인식으로 연구한 논문이 있다. 박찬식, 「4.3증언 프레임과 제주민의 자치의식」, 『탐라문화』 28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6. ; 홍기돈, 「제주 공동체 문화와 4.3항쟁의 발발조건」, 『탐라문화』 49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2015.

14) 양정심, 「1947년 제주3.1기념대회 주도세력에 대한 소고」, 『제주3.1사건과 1947년 동아시아』, 제주3.1사건 제7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제주4.3연구소, 2017.

끝나자 군중들은 시위에 나섰다. 해방은 되었으나 아직 대한민국이 수립되기 이전인 상황이었다. 이 과정에 기마경찰의 말발굽에 어린이가 다치게 되었는데 이를 경찰이 그대로 방치하고 지나가자 흥분한 군중들이 돌을 던지며 항의했고 무장경찰은 주민을 상대로 총격을 가했다. 국민학생과 아이를 안은 여인 등 6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미군정과 경찰은 시위 주동자를 검거하는 일에만 주력하였다. 그러자 3.1사건에 대한 ‘제주도 3.1사건 대책 남로당 제주도위원회 투쟁위원회’가 조직되었고, 3월 10일 제주도청 등 제주도내 직장의 95%인 166개 민·관 단체가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제주사회는 3.1사건 희생자를 위한 조위금을 모집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미군정은 육지부의 응원경찰과 군을 제주도에 투입하였다. 경찰은 파업 직장의 간부들을 연행해 갔고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에게 발포하는 일이 일어났다. 조병옥 경무부장은 3.1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의 발포행위는 정당방위라는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도청 직원, 학교 교원, 제주경찰 등 파업 관련자들을 군정재판에 회부하였다. 이와 같이 제주사회는 3.1사건 이후 격랑에 휩쓸렸다.

1948년 미군정은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통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결정하였다. 이에 남한 단독선거안에 대한 격렬한 반발이 있었고 남조선노동당은 단독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인 2.7사건으로 전국 총파업을 주도하였다. 제주도에서도 다시 검거 바람이 불었다.

1948년 4월 3일 남로당 제주도당이 무장봉기를 실시하였다. 350명의 무장대가 24개 경찰지서 가운데 12개 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다. 경찰과 서북청년회 숙소 등 우익단체 요인의 집을 지목해 습격하였다.

무장대는 5·10 단독선거 거부 투쟁으로 선거사무소 공격, 선거 공무원 납치·살해, 선거인명부 탈취 등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전개하였다. 다수의 주민들은 무장대에 동조하여 선거를 거부하며 입산해버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 2개 선거구는 투표수 과반수 미달로 무효 처리되었다.

5·10선거의 거부는 미군정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었다.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본토의 군 병력을 제주에 증파시켰고 제주도에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제주도에 파견된 9연대장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지대를 통행하는 자는 폭도배로 간주하여 총살하겠다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후 100여 곳의 중산간 마을을 불태웠다. 미군 정보보고서는 “마을 주민에 대한 ‘대량학살계획’을 채택했다.”고 기록해 놓고 있기도 하다. 군 내부에서는 이를 ‘초토화작전’이라고 불렀다. 제주43항쟁에서 토벌대로 지칭하는 구성원들은 육지부에서 제주도로 파견된 응원경찰인 전남경찰, 전북경찰, 경기경찰, 철도경찰 등과 대한민국 육군 제9연대와 제2연대, 그리고 군과 경찰이 된 서북청년회 등으로 구성되었다.

‘초토화작전’에 의해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 집중적으로 토벌대에 의한 제주도민의 집단 학살이 행해졌다. 제주43항쟁으로 3만여 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거의 초토화작전으로 인한 것이고 그 이전의 희생자들은 천여 명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1950년 한국전쟁 시기에 제주도에서는 또다시 보도연맹 가입자, 요시찰자 및 입산자 가족 등이 예비검속되고 처형되었다. 서귀포항, 제주항 앞바다, 제주읍 비행장, 셋알오름 등지에서 집단적으로 수장되거나 총살되고 암매장되는 등으로 학살되었다. 또한 제주도민들은 전국 각지 형무소로 보내어져 수감되기도 하였는데 이들도 즉결처분으로 학살되기도 하였다. 예비검속으로 인한 희생자와 형무소 재소자 희생자도 3,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禁足)지역 해제를 선언하고, 지역주민들이 담당했던 마을성곽 보초 임무도 없어지는 것으로 제주43항쟁을 종결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제주도민은 지속적으로 경찰의 감시와 구금, 정부의 홀대 속에 오랜 세월 정리되지 않은 제주43항쟁의 상처를 간직

하고 있다.

## 2.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사회 참여 활동

해방 이후 제주사회도 해방 정국 한국사회 흐름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고 제주불교계 또한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보조를 같이하였음을 앞에서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주4.3항쟁은 제주도 전역, 전체 제주도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으로 누구 하나 어느 곳 하나 예외가 없었다. 제주불교 또한 제주4.3항쟁의 전체적 전개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타종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막대한 피해양상을 드러낸다.

제주불교가 제주4.3항쟁기에 어떻게 활동하였는지는 제주도승려대회 준비위원장이었던 승려 이일선의 활동과 제주교무원의 활동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건국 정신과 발맞춰 전국적으로 신조선의 불교를 재건하려 한다고 선언한 제주도승려대회는 당시 제주불교 전체의 움직임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승려대회 준비위원장이었던 이일선은 제주4.3항쟁 발발 원인이 되는 ‘3.1투쟁기념행사 제주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였다. “3.1 기념 행사 준비위원회 명단, … 선전동원부 이일선(53세)”<sup>15)</sup>이라는 기록으로 제주 사회의 현안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한 이일선을 확인할 수 있다.

‘3.1투쟁 기념행사 제주도위원회’는 1947년 3.1절 기념행사를 전도민의 행사로 치르기 위해 구성한 제주도의 관공서와 사회단체, 교육계 등이 망라된 단체였다. 3.1절 기념행사는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이 행사 준비를 주도하였다. 제주불교의 승려 이일선은 이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

15) 제주도경찰국, 『제주경찰사』, 1990, p.281.

활동에 참여한다.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은 1947년 2월 23일 결성되었는데 읍면 대의원 및 각 사회단체 대표 315명과 방청객 200여 명이 참석한 결성대회는 이일선의 사회로 개막하였다. 다음의 제주신보 기사로 남아있다.

오랫동안 준비 중이었던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는 지난 23일 상오 11시부터 도내 읍면 대의원, 각 사회단체 대표 등 315명, 방청객 200여 명의 참석으로 초만원인 가운데 이일선(李一鮮)씨 사회로 개막되어 묵념이 있는 다음 만뢰같은 박수리에 안세훈씨 등단하여 “세계민주주의 체계에 입각한 모스크바 삼상의 결정은 민주과업을 진정하게 실천하게 되는 고로 삼천만 동포의 한사람까지라도 민전 산하에서 최후까지 삼상회의 결정의 실천을 위하여 투쟁하여야 된다.”는 개회사가 있어서 민전의 지향을 명시한 바 있었고...16)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은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명시하기도 하였다.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은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에 대해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폭동계획 운운하는 모략을 미군정 당국에 밀고하는 등 신중 반역행위를 하는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와 포용의 뜻을 표명하였다.

... 이어 토의사항으로 들어가 김정노씨로부터 조직 확대강화에 대한 구체적 복안을 발표한 다음 친일파 민족반역자 규정에 대하여 조몽구씨로부터 본 도민에 있어는 일제시대의 주구들이 어느 정도 자백하고 있으나 신관 반역자가 출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악질 중 악질은 일제에 아부하던 자가 또다시 일제시대와 같이 권세를 부려보려는 야욕 아래서 인민위원회에 가담함으로써 인민에 아부하려다가 탄압이 심함을 보니 슬그머니 빠져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기회주의자이다. 이러한 부

16) 「각종 사회단체 참가하고 ‘민전(民戰)’ 성대리 결성 의장단에 안세훈씨 외 2씨 추대」, <제주신보>, 1947. 2. 26.



류는 소위 명사란 자가 그러하다. 또다시 사실무근한 폭동계획 운운의 모략적 밀고를 당국에 하고 더구나 모종 배경으로써 의식적으로 반동하고 또한 모리행위를 자행하여 동포를 착취하는 자 등을 지적한 바 있었고 악질 통역에 언급하여 양심적인 행동을 희망한다는 요청의 의(意)를 표하였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반동하여 오던 자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자기비판 아래 반성하는 자는 민전으로써 포용할 용의를 가지고 있다는 등 대략 여상과 같은 설명이 있었다.…17)

지방선거 즉 남한 단독선거에 대한 의견 표명과 요구조건을 미군정 하지 중장에게 보내기로 결의하였다.

… 지방선거 행동강령에 대하여 긴급동의로써 민전 11개조 요구조건을 관철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하지 중장에게 보내기로 하고 만일 11개 요구조건을 불승인하면 지방선거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여 태도를 분명히 한 다음, 3.1절 기념행사에 대하여 안세훈씨로부터 질서정연히 평화리에 행하여야 된다는 설명이 있었다. 긴급동의로써 도령(道令) 제5호를 철회하라는 항의문을 도 당국에 제출할 것을 가결한 다음 고창무씨로부터 민생문제에 대하여 의식주의 해결책을 역설, 일체의 배급기관을 인민의 손에 넘겨주는 것만이 양책(良策)이라는 점을 강조…18)

3.1절 기념행사를 평화적으로 질서정연히 진행할 것을 설명하고, 의식주 등 민생문제 해결책 제시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일선은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의 사회를 맡았으며, 안세훈, 현경호와 함께 의장단에 선출되었다.

… 선출역원은 여좌하다.

의장단 안세훈씨 이일선씨 현경호씨

17) 위의 신문 자료.

18) 위의 신문 자료.

부의장단 김택수씨 김상훈씨 김용해씨 오창훈씨  
집행위원 김정노씨 외 33명<sup>19)</sup>

이일선은 이렇게 해방기 제주사회 활동에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함께 민주주의민족전선 활동을 한 안세훈은 신좌소비조합운동으로 항일운동을 한 인물이며, 김택수, 김정로는 제주청년동맹 등의 활동을 통해 민족운동을 한 인물이고, 조몽구, 김용해 등은 일본에서 노동조합을 통한 항일운동을 했던 인물들이다.

1947년 3.1절 기념행사는 제주4.3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해방이 되자 3.1절 기념행사는 전국적으로 거행되었는데, 1947년의 3.1절 기념행사는 모스크바삼상회의 내용의 실천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길이라는 인식으로 미소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주장하였고 언론 집회 시위의 자유 등을 주장하기도 하는 등으로 당대의 요구를 드러내는 행사로 거행되었다. 제주도에서도 1947년 3.1절 기념식을 전도민의 행사로 준비하기 위해 제주도의 각계각층이 모인 ‘3.1투쟁 기념행사 제주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제주도에서 미군정은 3.1절 행사 때 시위를 불허한다는 등으로 제주도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과 이견이 있었고 민전 의장단과 미군정 당국은 몇 차례 협의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3.1절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제주북국민학교에 제주읍·애월면·조천면 주민 3만여 명이 모였다. 3.1절 기념행사가 끝나고 시위하는 도중 경찰이 주민 6명을 총으로 사살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3.1사건이 제주4.3항쟁의 도화선이 되는 것이다.

이 시절 이일선이 제주북국민학교에서 대중연설했던 것을 기억하는 증언자가 있다.

북국민학교에서 신탁통치 운동할 때, 겨울이었는데 ‘서쪽에 저 동백꽃을 보라.’ 하면서 운동장에 핀 동백꽃을 가리키며 연설하던 모습이 눈에 선해. ‘서숙밥을 먹더라도 우리나라에서...’하고 연설을 했는데, 신탁해야

---

19) 위의 신문 자료.

한다는 쪽으로 연설했지. 그때는 신탁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야.<sup>20)</sup>

반탁의 움직임보다 신탁 찬성의 움직임이 더 크던 시기의 대중 강연으로 증언하였다.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 활동기의 이일선을 증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일선의 대중 강연은 대정 등 제주도를 일주하면서 강연을 했다고 증언되고 있다. 강연 때마다 청중이 뜨겁게 호응했다고 한다.<sup>21)</sup>

이와 같이 제주불교 승려 이일선은 해방 이후 자주적인 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소명에 부응하여 제주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일선 외에도 제주불교의 승려 원문상은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2.7 사건에 참여 하였으며, 승려 이세진은 제주4.3항쟁 발발 이후 입산하여 무장대 수뇌부 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의 제주사회 현안에 참여한 활동을 보인다.

또한 제주도승려대회로 결성된 제주불교의 대표 단체 제주불교교무원은 3·1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유가족 조위금 모집에 <제주신보>에 조위금을 기탁하는 것으로 참여한다.

총액 26만 7,000원 도과 / 본사 기탁 조위금 마감

3·1사건에 의하여 희생된 10여 명의 사상자 유가족에 대한 조위금 모집을 본사 사회부에서 착수하였음은 기히 도민 제현이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 후 예기(豫期) 이상의 다대한 성과를 거두어 3차에 공(巨)한 마감 연기 끝에 본월 15일로써 드디어 마감하기로 된 바 본사 기탁분 총액이 16만 7,118원 15전에 달하였사운데 …(중략)… 오로지 도민 제현이 숭고한 동포애에서 우러난 열과 성으로써의 후원의 결과라고 깊이 느끼는 바이오며 …(중략)… 방명(芳名)과 금액을 게재하오니 …(중략)… 교무원 200원 …(중략)… 총계 26만 7,118원 15전 야(也)<sup>22)</sup>

20) 증언 : 김평수(75세, 남제주군 토산리, 1998년 채록).

21) 증언 : 경득 스님(1937년생,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단산사, 2018년 채록).

제주불교교무원의 조위금 참여는 승려 이일선 등의 교무원 구성원들의 제주사회 참여 활동과 함께 하는 일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1945년의 제주불교승려대회의 결과로 구성된 제주불교교무원 차원의 제주4.3항쟁 참여 활동이라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주불교는 해방기 제주사회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 3. 제주4.3항쟁과 제주불교의 수난

제주4.3항쟁 당시 제주불교의 수난은 제주 사회 현안에 깊숙이 참여하여 활동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승려들의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관음사 등 사찰들이 제주4.3항쟁의 격전지로 수난을 당하기도 하였다.<sup>22)</sup>

제주4.3항쟁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불교 사찰은 39개소가 조사되어 있다. 이 중 사찰 건물의 피해는 36개소, 승려의 피해는 14개 사찰의 16명으로 조사되어 있다.

#### 1) 제주불교 승려의 수난

제주4.3항쟁으로 근대 제주불교 활동을 주도하였던 제주도의 승려들이 대거 희생되어 제주불교 활동 전반에 크나큰 손실이 발생했다. 제주4.3항쟁 시기 제주불교의 승려 피해는 14개 사찰 소속의 승려 16명으로 조사되어 있다. 승려 외 사찰 소속 인명의 피해도 물론 있었다. 승려 16명은 수장 2명, 총살 10명, 고문 후유증 사망 1명, 일본으로 도피 1명, 행방불

22) 「총액 26만 7,000원 도파 / 본사기탁 조위금 마감」, <제주신보>, 1947.6.18.

23) 제주4.3항쟁기 제주불교의 수난에 관한 조사 결과가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의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I』 한국전쟁피해조사보고서 제주도편(2004)이다. 또한 2018년 제주불교신문과 필자가 ‘제주불교의 제주4.3사건 피해 현황’을 보강 조사하였다.

명 2명으로 조사되어 있다.<sup>24)</sup>

가해자는 모두 토벌대이다. 제주불교계의 피해 시기는 제주4.3항쟁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1948년 10월 말부터 1949년 3월까지의 초토화작전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한국전쟁 발발 이후에는 2.7사건 관련자, 3.1사건 관련자, 보도연맹 관련자 등의 이유로 예비검속하였고 산채로 몸에 돌을 묶어 바다에 수장 혹은 집단학살 등으로 승려들이 살상 당하였다. 수장과 집단학살은 정식재판에서 죄를 묻지 않고 군경이 임의대로 인명을 살상한 불법적인 일이다.

피해 승려 개인별로 상황을 살펴보자. 이일선은 1950년에 예비검속 되어 산지 바다<sup>25)</sup>에 수장되었다. 이일선은 선운사에서 출가 백양사에서 공부하고 활동하다 1937년 백양사 포교사로 제주에 내려온 이후 제주에서 활동하였다. 1939년 제주불교연맹 포교부장으로 전도 순회강연을 주도하였으며, 1945년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의 준비위원장으로 친일을 반성하여 왜색화된 불교풍토를 정화하려는 노력을 주도하였다. 앞서 살핀 바처럼 1947년 3.1절 기념 투쟁 제주도위원회 선전동원부에서 활동하였으며,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의 3인의 의장단 중 한 사람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력에도 1950년까지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상좌인 김우송이 헌병장교로 그간 이일선을 보호하였기 때문이라고 증언되고 있다. 김우송은 제주불교청년단원으로 활동하였고 제주교무원에서 원당사를 대표하여 활동한 승려이기도 하다. 정광사에서 손을 뒤로 묶이어 포박당한 채 사람들과 줄줄이 묶이어 끌려가면서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던 이일선을 정광사 보살이 숨어서 목격하였다.<sup>26)</sup>

24) 한금순, 「한국전쟁시기 제주도 불교계의 현황과 분석」,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제』 한국전쟁피해조사보고서 제주도편,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2004.

25) 제주항 앞바다를 제주사람들은 이렇게 일컫는다.

26) 증언 : 김평수(81세, 남제주군 토산리, 2004년 채록), 양경월(78세, 제주시 외도동, 2004년 채록), 김택춘(82세, 서귀포시 하원동, 2004년 채록), 헤일스님(53세, 서귀포시 정방사, 2004년 채록), 광일 스님(76세, 신산리 해림사, 2004년 채록), 성월 스님(84세, 하모리 대각사, 2004년 채록).

고인봉은 은수사 주지이다. 1945년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에서 제주도불교청년단 단장으로 추대되었다. 1950년 이일선이 예비검속으로 살해당하는 것을 보고 일본으로 피신하였다. 일본에서 승려 생활을 하다가 입적하였다.<sup>27)</sup> 고정선은 수원사 주지이다. 1945년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의 교무회원, 제주도불교청년단 선전부원이었다. 1949년 봄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였고, 고문 끝에 고정선은 총살당하였다.<sup>28)</sup> 당시 좌익 쪽 연락책이었다고 증언되는 승려 고인봉이 수원사에 기거했던 것이 원인이었다. 단산사의 승려 강기규는 이일선의 상좌였다. 이일선은 단산사가 있는 지역인 대정에서 대중 강연을 할 때 단산사에 머무르기도 하였다.<sup>29)</sup> 강기규는 1945년 제주도 불교청년단 집행부의 선전부 활동을 했다. 1948년 가을, 소개 되던 때 단산사 경내에서 토벌대에 총살당하였다.<sup>30)</sup> 이일선, 고인봉, 고정선, 강기규 등이 서로 연결고리에 묶여 있어 제주4.3항쟁 시기 제주불교계의 제주 사회 참여 활동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이세진은 내장사에서 출가하였다. 1932년 경성 개운사 불교 전문강원에서의 강연 기록이 남아있고 1937년 금강산 표훈사 중향강원의 강사였다. 1939년 한림포교당 포교사로 부임하면서 제주도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1939년 제주불교연맹에서 교육부장으로 학인을 교육한 강사이다. 1942년 도평리에 서관음사를 창건하여 기와공장을 운영하며 강원설립을 계획하는 등으로 불교의 경제적 자립을 실천하고자 하였다. 1948년 입산하여 무장대로 활동하였다. 무장대 지휘부였던 이덕구 등 15인과 함께 관음사에서 기거하며 활동하였다고 증언된다. 1949년 초, 토벌대에 포로로 잡혀 제주시 동부두 주정공장에 잡혀있었으나, 이일선의 상좌였던

27) 증언 : 고도인(70세, 제주시 연동, 2004년 채록), 해일 스님(53세, 서귀포시 정방사, 2004년 채록).

28) 증언 : 일조 스님(64세, 북제주군 수산리 대원정사, 2004년 채록).

29) 증언 : 경득 스님(1937년생, 서귀포시 대정을 인성리 단산사, 2018년 채록).

30) 증언 : 성윤 스님(67세, 남제주군 인성리 단산사, 2004년 채록).

헌병장교 승려 김우송의 도움으로 목숨을 유지한다. 그러나 1949년 7월 관음사에서 다시 잡혀 나가 산지 바다에 수장 당하였다.<sup>31)</sup>

고제선은 서관음사 승려로 이세진의 상좌이다. 대각사 서기를 역임하였고 1945년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에 서관음사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서관음사 소각 후 행방불명되었다.<sup>32)</sup> 서관음사는 도평리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도평리는 소개되어 마을 주민들이 집단학살 당한 동네이다.

원문상은 기림사에서 출가하였다. 법화사에서 활동하였으며 1945년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의 부의장으로 승려대회를 진행하였고 중앙고무회에 파견될 제주대의원으로 추대되었다. 중문중학교에서 역사와 국어, 한문을 가르쳤다. 1950년 7월 7일 서귀포 경찰서장 김호겸의 이름으로 제주도 경찰국장에게 보고한 문서인 ‘공무원 구속자 명부’에 의하면 원문상은 2·7사건의 주모자이고 좌익사상 극렬자로 기록되어 있다.<sup>33)</sup> 증언으로는 서북청년단으로 내려온 전문규가 누명을 씌워 학교를 빼앗겼고<sup>34)</sup> 예비검속 되어 첫알오름에서 처형당하였다.<sup>35)</sup> 1950년 8월 모슬포경찰서관내(현재 한림읍, 대정읍, 한경면, 안덕면)에서 예비검속한 농민, 마을유지, 교육자, 공무원, 우익단체장, 학생들이 첫알오름 구덩이에서 총살되고 암매장되었다.

이창현은 1950년 9월 4일 제주경찰서 예비검속자 명단에 있다. 이창현

31) 증언: 광순 스님(68세, 북제주군 하도리 명법사, 2004년 채록), 고제생(78세, 제주시 아라동, 2004년 채록), 양경월(78세, 제주시 외도동, 2004년 채록), 강순익(84세, 제주시 일도동, 2004년 채록), 김평수(81세, 남제주군 토산리, 2004년 채록), 광순 스님(82세, 하도리 명법사, 2018년 채록).

32) 「교적부」(관음사 포교소, 1947.).

33) 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 말, 2000.

34) 전문규는 원문상을 제거하고 중문중학원 교장서리로 부임한다.(조명철 증언, 85세, 제주시 일도동, 2018년 채록).

35) 증언 : 원인상(2000년 84세로 사망, 서귀포시 보목동 혜관정사, 2004년 채록), 일조 스님(64세, 북제주군 수산리 대원정사, 2004년 채록), 김택춘(82세, 서귀포시 하원동, 2004년 채록), 이경순(83세, 제주시 용담동, 2004년 채록), 일조 스님(78세, 제주시 수산리 대원정사, 2018년 채록), 조명철(85세, 제주시 일도동, 2018년 채록).

은 검속 당시 직업이 승려로 기재되어 있다. 남로당원, 농위원이 범죄개요로 기록되어 있다. 범죄개요를 봤을 때 예비검속자들과 함께 희생되었을 것으로 보인다.<sup>36)</sup>

오이화는 관음사에 출가하여 관음사 서기, 제주불교포교당 서기, 법화사와 불탑사 감원, 포교당 감원, 관음사 2대주지, 제주교구교무원 재무국장, 조선불교 중앙대의원, 제주교구 교무원장, 1939년 제주불교연맹 활동을 주도하는 등으로 제주불교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었다. 제주4.3항쟁 시기 무장대의 활동무대로 활용되던 관음사의 주지였다. 1949년 2월 관음사전투의 격전지로 토벌대와 무장대의 전투 결과 토벌대에 의해 관음사가 불태워졌다. 당시 토벌대는 관음사 주지 오이화를 마차에 묶어 고문을 했다고 한다. 1950년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sup>37)</sup>

이성봉은 화엄사 제주포교소 포교사로 1937년 두 달에 걸친 법화산림대작불사를 마련하여 제주도 순회포교를 실시하였다. 1939년 제주불교연맹에서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에서 교무회원으로 선정되었다. 1949년 10월 금봉사 경내에서 총살당하였다. 금봉사 경내로 도망 온 마을 주민을 숨겨주고 있었는데, 마을 청년을 뒤따라 온 토벌대가 청년의 행방을 물었으나 스님이 모른다고 하자 일고여덟 발의 총을 쏘아 죽였다고 한다.<sup>38)</sup>

백인수는 용장사 승려로 1940년 백양사 김녕포교소 감원을 역임하기도 하였으며 1945년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에서 교무회원, 제주불교청년단 선전부장으로 추대되었다. 백인수는 1949년 1월 6일 토벌대의 도평마을 집단학살로 희생되었다.<sup>39)</sup> 용장사는 서관음사 인근에 위치한 사찰이다.

36) 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월간 말, 2000.).

37) 증언 : 김평수(81세, 북제주군 토산리, 2004년 체록).

38) 증언 : 수암 스님(64세, 북제주군 하도리 금봉사, 2004년 체록. 2018년 체록).

39) 증언 : 홍순여 (75세, 제주시 도평동, 2004년 체록). 홍순여(제주시 도평동 용장사, 2018년 체록).



신흥연은 함덕리 백양사포교소를 창건한 승려이다. 비파, 시금치, 무, 배추 등을 함덕리에 보급하여 주민들의 경제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다. 제주도에서 유명했던 함덕 배추는 신흥연의 보급 결과이며 함덕리 주민들에게 퇴비 만드는 법 등을 가르치기도 하고, 밭을 세내어 신도들과 함께 농사를 짓고 수확물은 팔아서 신도들과 함께 나누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고 증언된다. 함덕리 마을 청년들이 토벌대를 피해 절에 숨어 생활하는 것이 발각되어 굴나무에 묶인 채 살해되었다. 군인들이 마을 청년들에게 죽창을 들고 스님을 찌르게 하였다. 가부좌를 하고 염불을 하며 임종했는데 가부좌 상태로 굳어 있어서 시신을 펼 수가 없는 지경의 것을 상좌 김두전의 기도로 몸을 풀어 매장할 수 있었다고 증언된다.<sup>40)</sup>

양홍기는 원만암 승려로 1945년 제주도불교청년단 단원이었다. 홀로 절을 지키다 토벌대에게 총살당하였다.<sup>41)</sup> 김덕수는 월정사 승려이다. 입산하여 무장대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승려 김석윤의 일기에 의하면 김덕수는 1948년 11월 13일 월정사에서 잡혀나가 제주시 박성내에서 총살당하였다.<sup>42)</sup> 김유신은 북촌포교소 주지이다. 북촌리 집단학살 당시인 1949년 1월 17일 마을 주민 500여 명과 함께 총살당하였다.<sup>43)</sup> 북촌리 집단학살은 제주4.3항쟁에서 가장 피해 규모가 컸을 뿐 아니라 잔인하였다. 애월리 보광사에는 성명을 기억할 수 없는 승려가 희생되었다. 1948년 가을, 보광사에 무장대가 다녀갔는지 여부를 조사하던 토벌대에게 보광사 경내에서 총살당하였다.<sup>44)</sup>

1945년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는 친일을 반성하고 건국정신에 맞

40) 증언 : 신금자(65세, 제주시 연동, 2004년 채록), 혜중 스님(75세, 제주시 충혼각, 2004년 채록), 수암 스님(64세, 북제주군 하도리 금봉사, 2004년 채록), 양지규(69세, 북제주군 함덕리, 2004년 채록), 수암 스님(북제주군 하도리 금봉사, 2018년 채록).

41) 증언 : 정무생(79세, 서귀포시 하원동, 2004년 채록).

42) 증언 : 김동호(57세, 제주시 도남동, 2004년 채록). 김석윤의 일기(손자 김동호 소장).

43) 증언 : 김택(67세, 북제주군 북촌리, 2004년 채록).

44) 증언 : 선미화(65세, 북제주군 고내리, 2004년 채록).

게 불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대회였다. 희생된 많은 승려들이 제주도승려 대회에 참석하였던 이력을 보인다. 이와 같이 제주43항쟁으로 인해 제주 불교 활동을 이끌던 주요 승려들의 희생은 제주불교에 치명상을 입히는 것이었다. 제주4·3사건이 제주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만큼 제주불교도 해방 이후 새로운 국가건설과 함께 계획했던 새로운 불교활동의 염원 자체가 좌절되는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승려들의 피해 상황을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표 1> 제주4.3항쟁 피해 승려 현황

성명	승려 이력	피해상황
이일선	·백양사 제주포교소 ·제주불교연맹 포교부장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대회 준비 위원장	·예비검속 ·산지바다 수장
이세진	·개운사 불교전문강원 강연 ·표훈사 중향강원 강사 ·한림포교당 포교사 ·제주불교연맹 교육부장 ·서관음사 창건	·주정공장 포로로 잡힘 ·산지 바다 수장
원문상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 부의장 ·중앙교무회 제주대의원 ·중문학원 교사 ·법화사 승려 ·대각사 승려	·예비검속 ·섯알오름 처형
오이화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 의장 ·관음사 주지 ·법화사 감원 ·불탑사 감원 ·제주불교연맹	·토벌대의 고문 ·고문후유증으로 사망
이성봉	·화엄사 제주포교소(금봉사) 포교사 ·제주불교연맹 검사위원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 교무회원	·경내에서 토벌대에 총살
백인수	·용장사	·마을사람들과 함께

	·백양사 김녕포교소 감원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 교무회원 ·제주불교청년단 선전부장	집단 총살
신흥연	·함덕리 백양사포교사 창건 ·백양사 북촌포교소 ·외곶절	·토벌대에게 나무에 묶여 경내에서 죽창으로 사살
고인봉	·은수사 ·제주도불교청년단 단장	·도일 후 사망
고정선	·수월사 주지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 교무회원 ·제주도불교청년단 선전부원	·고문 ·경내에서 총살
양흥기	·원만암 ·제주도불교청년단 단원	·경내에서 총살
강기규	·단산사 ·제주도불교청년단 선전부원	·경내에서 총살
김덕수	·월정사	·박성내에서 총살
김유신	·북촌포교소 주지	·총살
고제선	·서관음사 ·대각사 서기 ·조선불교혁신제주도승려대회	·서관음사 소각 후 행방 불명
이창현	·예비검속 당시 직업 승려 ·용담리	·예비검속
성명 미상	·보광사	·경내에서 총살

승려들의 피해 상황별로 정리해 보면 그 처참함을 상상할 수 있다. 경내에서 토벌대에 잡혀 총으로 인한 사살의 사례가 많다. 주도적으로 활동하였던 이일선, 이세진의 경우는 수장 당하였다. 손을 묶고 몸에 돌을 매달아 배에 싣고 바다로 나가 빠뜨렸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제주4.3항쟁 시기 승려들의 피해는 제주도민들의 학살 사례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 2) 제주불교 사찰의 수난

제주4.3항쟁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불교 사찰은 39개소가 조사되어 있다. 해방시기 제주불교의 사찰로 기록을 남기고 있는 곳은 82곳이다. 사찰 내에 있던 법당과 요사채, 객사 등의 사찰 내 건물 피해 위주로 조사되어 있다. 건물 이외에 불상 등의 피해는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 쉽게 조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소개령으로 피난할 경우 불상 등을 끌어안거나 등에 업어서 옮겨 다녔던 상황이 증언되고 있어 불상과 탕화, 사찰 내 집기 등의 훼손은 사찰 건물피해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정도로 짐작할 수 있다. 현재 제주도에 제주4.3항쟁 이전부터 봉안하였던 불상과 탕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점 또한 제주불교의 제주4.3항쟁 시기의 수난의 실태를 말해주는 점이기도 하다.

사찰 건물의 피해는 1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군과 경찰, 서북청년단으로 구성된 토벌대에 의해 자행되었다. 조사된 39개 피해 사찰 중 1개소인 함덕리 본원사는 무장대가 법당 일부를 태웠다. 본원사 주지의 아들 김병택이 경찰 간부급이라서 일어난 일이었다고 마을 청년들에 의해 바로 복원시키기도 하였다.

사찰 피해 시기는 주로 1948년 11월경에서 1949년 2월에 걸쳐 주로 이루어지는데 토벌대의 무자비한 학살과 방화가 자행되던 초토화 작전 시기에 해당한다.

사찰 건물의 피해는 사찰 경내의 모든 전각을 소각하고 불상 등의 집기까지 소각시키는 전소의 형태가 있고 불 질렀으나 일부만 소각된 경우,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일부러 파옥시키는 경우, 그리고 소개령에 의해 접근을 금지당하면서 폐허가 된 경우, 강제 매각으로 뺏기는 경우 등으로 조사된다.

전소된 사찰은 19개소이다. 법당, 요사채, 객사 등 사찰내의 건물을 모두 불태워버렸다. 소각하였으나 일부만 탄 곳이 3개소이다. 사용할 수 없

게 하려는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파옥한 곳이 9개소로 지붕과 벽을 허물어 건물로서의 기능이 없는 상태로 훼손하였다. 오랫동안 접근과 사용이 금지되면서 폐허된 곳이 4개소, 강제 매각 당한 곳이 1개소로 집계된다. 전소시킨 후 토벌대 주둔소로 활용하거나 육군훈련소 숙영지로 혹은 면사무소로 사용되는 사찰도 있다.

관음사는 무장대의 이세진이 승려인 관계로 무장대의 공격 교두보로 활용되기도 하였고, 무장대 사령관 이덕구가 관음사에 주둔하기도 하였다. 1949년 2월 12일 토벌대와 무장대간의 관음사전투로 관음사는 법당을 비롯한 7동의 전각이 전소되었다. 불상 등이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졌다. 주지 오이화 등은 소개되어 관음사를 비워야 하였다. 미군정 ‘G-2 보고서’ 등에 의하면 제2연대 제2대대 병력 800여 명이 민간인들을 동원하여 폐허가 된 관음사 경내에 주둔지를 구축하였다. 토벌대가 구축한 숙영지와 초소 등 27곳의 방어유적과 7백~8백 미터의 돌담으로 제1, 제2 방어선을 겹겹이 구축하였던 유적이 조사되어 있다.<sup>45)</sup> 1949년 4월 국방장관과 사회부장관이 대통령의 특명으로 관음사 주둔 제일선 장병을 위로 시찰하기도 하였다.<sup>46)</sup> 1955년까지도 관음사 터는 경찰유격대의 전조선 신선대 사령부로 사용되고 있었다.

제6차 기관장회의는 경찰국 주관으로 10일 녹음 짚은 구 관음사터에서 개최하였는데, 길 지사와 40여 명의 각계 대표가 참석하고 내도중인 김세완 대법관도 임석하였다. …(중략)… 하오 1시 경찰국에 집합하고 사고의 길을 자동차로 달려 2시반경 구 관음사터에 도착 경찰밴드의 환영을 받은 일행은 신 경찰국장의 안내로 경찰유격대의 전조선 신선대 사령부를 방문하였다. 잠시 휴게한 후 3시부터 밤나무 그늘에 명석을 깔고 도형으로 앉아 회의를 시작하였다. …(중략)… 회의를 마친 일행은 경찰에 의하여 명명되었다는 구 관음사터 뒷산 해발 800미의 “평화고

45) 「한라산 관음사 경내서 43 ‘방어유적’ 발견」, <제주일보>, 2001. 3. 24.

46) 「평화의 낙원 재건, 국방. 사회 양장관 제주도 시찰」, <자유신문>, 1949. 4. 10.

지”를 답사하고 US99식 소송으로 사격경기에 들어갔는데...47)

경찰은 역사적 사실을 방치하고 관음사 터 일대를 평화고지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법화사는 전소 된 후 다시 법당과 요사채를 마련하였으나 1952년 2월부터 1953년 9월까지 육군훈련소 제3숙영지로 이용되며 사찰로서의 기능은 잃어버렸다. 선광사는 파옥시켰고 법당의 목재는 후일 남원중학교 건설에 이용되었다. 고관사는 1948년 11월 조천면사무소가 불에 타 업무를 볼 수 없게 되자 경찰이 총을 등에 들이대며 강제 매각 당하였다.

<표 2> 제주4.3항쟁 피해상황별 사찰 현황

연번	피해상황	사찰명	당시 소재	피해 내용
1	강제매각	고관사	조천읍 조천리	·강제매각 ·면사무소로 사용
2	일부 소각	금봉사	구좌읍 하도리	법당 반 소각, 요사채 소각
3	일부 소각	본원사	조천읍 함덕리	법당 일부 소각
4	일부 소각	선광사	남원면 남원리	법당 철거, 객실 소각
5	전소	고릉유사	애월읍 고내리	전소
6	전소	관음사	제주읍 아라리	·법당, 기타 건물 7동 전소 ·불상 소각
7	전소	광룡사	한림읍 상대리	법당, 객실 2동 전소
8	전소	귀이사	애월읍 상귀리	·법당, 요사채 2동 전소 ·불상 등 일체 전소
9	전소	극락사	애월읍 상귀리	법당, 요사채 전소
10	전소	금천사	애월읍 어도리	법당, 객실 전소
11	전소	묘음사	애월읍 어음2리	법당, 객실 전소
12	전소	백양사 북촌포교소	조천읍 북촌리	·법당, 요사채, 객실 ·불상 등 일체 전소

47) 「6차 기관장 회의... 산새소리 평화로운 관음사터」, 『제주신보』, 1955. 6. 12.

13	전소	법화사	서귀읍 하원리	·법당, 요사채, 객실 전소 ·육군훈련소 숙영지로 사용
14	전소	부악사	한경면 청수리	법당 전소
15	전소	사찰명 미상	한림읍	사찰 전소
16	전소	서관음사	제주읍 도평리	법당, 요사채, 객실 전소
17	전소	석굴암	제주읍 노형리	법당 전소
18	전소	소림사	제주읍 아라리	법당, 요사채 전소
19	전소	수덕사	애월읍 광령리	법당, 객실 등 일체 전소
20	전소	외곶절	조천읍 함덕리	법당, 요사채 전소
21	전소	용장사	제주읍 도평리	법당, 객실 전소
22	전소	원만사	서귀읍 하원리	법당 전소
23	전소	월정사	제주읍 오라리	법당, 가옥 5채 전소
24	파옥	고운사	애월읍 고내리	법당, 요사채 2동 철거
25	파옥	백화사	제주읍 아라리	법당, 요사채 파옥
26	파옥	보광사	애월읍 고내리	법당, 요사채 철거
27	파옥	봉주사	표선면 토산리	법당, 객실 파옥
28	파옥	불탑사	제주읍 삼양리	법당, 요사채 파옥
29	파옥	수산사	애월읍 수산리	법당, 객실 철거
30	파옥	용주사	서귀읍 호근리	법당, 요사채 파옥
31	파옥	월라사	남원면 신호리	법당, 요사채 파옥
32	파옥	호춘봉 암자	남원면 하효리	법당 파옥
33	폐허	단산사	대정읍 인성리	소개 폐허
34	폐허	두수사	성산읍 신산리	소개 폐허
35	폐허	원당사	제주읍 삼양리	소개 폐허
36	폐허	은수사	한경면 고산리	고인봉 스님 도일(渡日)
37	인명 피해	대각사	제주읍 이도리	원문상 스님 사망
38	인명 피해	정광사	제주읍 일도리	이일선 스님 사망
39	인명 피해		제주읍 용담리	이창현 예비검속

제주4.3항쟁 시기 제주불교의 수난은 제주사회상에 적극 참여한 결과였다. 이는 비단 제주불교만의 수난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의 수난이기도 하였다.

제주4.3항쟁 시기 제주불교의 수난은 인명과 사찰의 피해뿐만이 아니었다. 불상, 탕화 등 사찰 내의 집기도 물론 많이 훼손되었으나 이제 더 이상 증언자가 생존해 있지 않아 조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 VI. 맺음말

제주불교는 해방기 한국사회의 흐름을 따라 친일을 반성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에 동참하였다. 사회적으로 신탁 반탁의 물결 속에 자신들의 의향을 표명하며 사회 활동에 동참하였다. 승려 이일선은 제주도민주주의민족전선 활동에 앞장섰고 승려 이세진은 제주4.3항쟁에서 무장대 지도부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활동들은 제주불교가 제주사회의 현안에 적극 참여하였던 모습의 일부이다.

근대 이후 제주불교의 중심지였던 관음사는 관음사전투로 인해 사찰 건물이 모두 불태워지고 군 주둔지로 활용하기 위해 군 숙영지와 초소 등을 건설해 놓아 사용하면서 사찰로서의 종교 활동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도 하였다. 제주4.3항쟁 이후까지 경찰유격대의 사령부에서 사격 경기 등을 행하는 곳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1964년에 이르러서야 관음사의 재건이 시작되는 것으로 제주불교 활동의 험로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제주4.3항쟁 시기 제주불교의 이러한 수난은 모두 제주불교가 제주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제주불교의 피해 또한 막심하였다. 제주불교를 이끌던 인명의 피해는 오래도록 그 후유증이 컸으며, 사찰 건물 등의 큰 피해 또한 재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정도였다.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



제주불교의 피해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유독 컸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북청년단의 기독교적 성향 등이 짐작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연구는 미흡하다. 그러나 서북청년단이 행했던 제주도에서의 비인간적 만행은 제주불교 또한 그 연장선상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를 통해 필자는 제주불교에서도 제주4.3항쟁에 적극 참여하였던 제주불교 승려들과 제주불교 사찰의 업적을 기리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한다. 제주도민들은 제주4.3항쟁과 관련이 있음을 부정하며 살 수 밖에 없었던 그간의 정부의 폭압으로부터 이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 제주불교계도 이제 제주4.3항쟁기 제주불교의 참여활동을 조명하고 기리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적부」, 관음사 포교소, 1947.
- 김석윤 일기, 김동호 소장.
- <법계>, 제주교무원, 1946, 등사본.
- 『제주경찰사』, 제주도경찰국, 1990.
- 『제주경찰사』, 제주도경찰청, 2000.
- 김광식, 『한국근대불교사연구』, 민족사, 1996.
- \_\_\_\_\_, 『근현대불교의 재조명』, 민족사, 2000.
- \_\_\_\_\_, 『한국현대불교사연구』, 불교시대사, 2006.
-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조계종사 -근현대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1.
-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 II』 한국전쟁피해조사보고서  
제주도편, 2004.
- 이도영, 『죽음의 예비검속』, 월간말, 2000.
- 제민일보 4·3취재반, 『4·3은 말한다』 1, 전예원, 1994.
- 한금순, 『한국 근대 제주불교사』, 경인문화사, 2013.
- 김광식, 「8·15해방과 불교계의 동향」, 『불교사연구』 창간호, 1996.
- \_\_\_\_\_, 「해방지후 제주 불교계의 동향」,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2, 독립기념  
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8
- 한금순, 「한국전쟁시기 제주도 불교계의 피해 현황과 분석」, 『한국전쟁과 불  
교문화재 II』 한국전쟁피해조사보고서 제주도편, 대한불교조계종총무  
원, 2004.
- \_\_\_\_\_, 「4·3사건과 제주불교계의 피해 현황」, 『불교평론』 19, (재)만해사상실  
친선양회, 2004.
- \_\_\_\_\_, 「이일선과 제주불교연맹」, 『정도학연구』 9, 한국정도학회, 2006.
- \_\_\_\_\_, 「근대제주불교사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2010.
- \_\_\_\_\_, 「제주43사건과 제주불교」, 제주불교 4.3의 진실규명을 위한 세미나  
자료집 『4.3으로 상처난 제주불교의 영혼을 위로하다』, 제주불교연합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길상회 주최, 2017.
- 한금실, 「이세진(1910~1949年)의 제주불교혁신운동 연구」, 제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자유신문>, <제주신보>, <제주일보>, <불교신문>, 제주43아카이브.

## Abstract

### Jeju 4.3 Resistance and Social Activism of Jeju Buddhism

Han Geum-soon  
(Lecturer, Jeju National Univ.)

Jeju Buddhism actively participated in Jeju 4.3 Resistance in cooperation with Jeju civilians. It reflected that the Buddhist monks in Jeju were aware of the societal issues and shared the interests of civic movements at that time. In fact, social activism in Jeju thrived with the collective aspiration of new autonomous nation-state in the Jeju 4.3 periods. After Japanese colonialism was disassembled, these social movements were developed in the response of the chaos from the political division of whether to approve the trusteeship arrangement of Korea by United States and Soviet Union. The boycott of 5.10 election in Jeju was the representative case of social activism against establishing the single government of South Korea. Jeju Buddhism also got alignment with civilians and supported these activist movements of Jeju society.

We can confirm the activist attitude of Jeju Buddhism during Jeju 4.3 period, through the social activities of Buddhist monks in Jeju. Yi Il-seon was one of representative figure who actively engaged in Democratic National Front of Jeju-do. Furthermore, Yi Se-jin engaged in the leadership of armed guerrilla for Jeju 4.3 Resistance. Jeju Buddhist Office of Religious Affairs also supported the social activities in Jeju area.

However, Gwaneumsa was completely devastated by the fierce battle of Jeju 4.3 Resistance, and it lost its central role of Jeju Buddhism. After all the temple buildings was incinerated by scorched-earth operation, the site of Gwaneumsa was appropriated as a military camp with guard posts and

billeting places. On that account, the religious activities of Gwaneumsa was not possible. Futhermore, most Buddhist temples suffered from similar damaging situation of Gwaneumsa.

Owing to the activist attitude of Buddhists in Jeju 4.3 Resitiance, Jeju Buddhism has suffered from lots of casualties including the leading figures of Buddhist community and the extensive damages of temple properties. These aftereffects of Jeju 4.3 still remain ruinous for Jeju Buddhism to restore.

Key words

Jeju 4.3 Resistance, Jeju Buddhism, Yi Il-seon, Yi Se-jin, Gwaneumsa, Battle at Gwaneumsa, scorched-earth operation, Burial Execution at sea, Execution by shooting, Incineration.